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ISSN 1599-7863

2012년 여름 38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반민족광  
사람들



---

## Cover Story

---



진도 남도석성 남문  
진도군 남동리 소재, 사적 제 127호



## Contents

### 기획 | 진도

- 04 진도, 또 하나의 고려-삼별초 항쟁
- 08 축제식 상·장례풍속과 다시래기
- 12 진짜 소리는 노래방에 있다
- 15 윤림산방

### 문화칼럼

- 18 자연이 선물한 여름나기 용품

### 회원마당

- 22 유물이 간직한 시간의 깊이
- 24 막새에 내려앉은 아름다움

### 학술상

- 27 고려시대 아미타내영도와 임종의례의 관련성 시론

### 박물관 소식

- 32 2013 세계박물관회연맹 서울총회

### 숨은전시 찾아보기

- 34 고고관 부여·삼한실

- 35 국립중앙박물관회는

## 책을 만들면서..

가는 세월 잡으면서  
보아도 예쁘다  
자세히 보니 더 이쁘구나...(水)

참 수고하셨습니다.  
소리 환대 고마웠고요  
달빛에 영혼을 씻은 듯 합니다...(河)

가슴에서 토해내는  
소리 한가락 한가락에  
그라제, 그라제  
절로 나오네...(愛)

이른 무더위에 지쳐  
살짝 물어갈까 했더니  
노는게 노는게 아니다...(리)

비 내리고 나면  
가끔 무지개도 뜨겠지요...(정)

고된 발일에 성가실텐데  
곱게 단장하고 밤이 늦도록  
좋은소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애 처음소리였습니다!!!  
아짐, 건강하세요...(藝)

힘차고 규칙적으로  
쿵-쿵-쿵-쿵-쿵 (延)

회지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 2012년 06월 15일

발행처 | 국립중앙박물관회

발행인 | 김정태

기획 | 신병찬

편집위원 | 정미희·정혜리·조애경·최예정·하영남

진행 | 서승연

디자인 | themageworks, (02)2268-5305

발행처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회

전화 | (02)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numes.org



한반도 서남단 제3의 섬 珍島, 詩書畵唱의 보물섬이다. 본섬과 200여 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비옥한 땅이 자랑이다. 옥토가 주는 풍요 덕분에 독특한 문화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다. 진돗개 · 구기자 · 돌미역 三寶와 서화 · 민요 · 흥주 三樂이 섬의 대표선수이다. 또한 중앙과 원거리에 있어 아직도 古語가 많이 남아있고 古風의 習俗이 그대로 전해진다. 그 전통을 초분과 씻김굿, 다시래기의 장례문화에서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다. 소리의 고향이며 민속의 보고인 진도, 그들과 함께 멋과 여유를 맛보고 싶다. 분초를 다투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 남으로 진도대교를 건너간다.

## 진도, 또 하나의 고려 - 삼별초 항쟁

글 최예정\_편집회원

\_ 고려 원종 11년(1270년) 8월 19일, 벽파리 바닷가 마을, 피약별이 내리쬐는 황금 들녘에서 농부들이 풍년의 들노래를 부르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 순간 바다 저 멀리서 천여 척의 배들이 검은 구름떼처럼 밀려 들어온다. 농부들은 귀신을 본 듯 혼비백산 제 식솔들을 챙겨 집으로 뛰어들었다. 삼별초가 진도에 입성한 것이다.

\_ 최씨 무신정권하에서 삼별초는 전국적으로 활약하며 몽고와의 항전에서 가장 용감하게 싸웠다. 강화도 천도 후 몽고의 약탈과 압박이 도를 넘자 고려 정부는 개경 환도를 결정하고 삼별초의 해산을 명령한다. 이에 삼별초는 몽고에 대한 결사항전을 주장한다. 1270년 6월 3일, 배중손의 지휘 하에 정부를 구성하고 천여 척의 선단에 조정의 재물과 무기를 모조리 싣고 권문세족과 그 자식을 인질로 끌고 진

도로 향했다. 해전에 약한 몽고군에게 대항하기 위해 진도는 지리적으로 최상의 전략지이다. 울돌목의 거센 물살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해상교통의 요충지로, 전라·경상의 조운선이 집약되며 물자 확보가 용이하다. 내부는 평지이면서 외곽은 산으로 둘러싸여 독자적으로 세력을 형성할 수 있고 풍부한 해산물과 비옥한 농토는 고립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진도에 상륙한 삼별초는 용장산성을 근거지로 하여 官府를 열고 承化侯 王濫을 왕으로 추대하여 또 하나의 고려 정부를 세웠다. 용장산성은 진도 동북방 벽파나루와 선황산 주변을 따라 13km에 이르는 나성 형식의 석성이다. 현재는 용장산 좌우의 능선을 따라 용장사터와 왕궁터에 약간의 석축이 남아 있다. 발굴 당시 '석축이 웅장한 계단 형상의 궁궐로 자연지대를 최대한 살린 개경 만월대 왕궁터와 흡사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건물 배치는 왕의 처소를 맨 위에 두어 위엄을 드러내고 그 아래로 건물지와 회랑이 있고 보도가 깔려있다. 밑에서 올라다보니 늙은 왕궁이 보인다. 7천여 평에 들어선 17개의 건물, 구국의 일념으로 중무장한 백성들이 보인다. 그러나 무지렁이 백성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고관대작의 처소를 급조하느라 얼마나 황망했을까? 폐허로 변해버린 왕궁터에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을 고단함이 낡은 영상처럼 지나간다. 계단계단마다 몽고군의 무차별 파괴로 무너져 내린 기와편들이 고스란히 땅에 박혀 기와무덤을 이루고 있다. 기둥을 받치고 있었을 받침돌의 흠들이 왕궁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맨아래 석축 밑에 있는 우물은 그 옛날 왕궁의 위엄과 활력을 감춘 채 미동도 없이 하늘만 비추고 있다.



01

명실공히 해상왕국을 건설하며 난공불락이던 용장산성도 1271년 5월 15일 여몽연합군의 삼면 공격으로 함락된다. 계속되는 승전보로 방심하던 차에 기습공격을 해온 것이다. 후퇴하던 온왕은 왕무덤재에서 홍다구에게 붙잡혀 아들 환과 함께 논수골에서 참형당한다. 고작 10개월 天下였다. 한 나라의 지존으로서 이보다 굴욕적일 수 있을까. 왕으로 추대된 이상 극존의 대우가 마땅할 터인데 天地間을 구분 못 하는 야만성에 몸서리가 쳐진다. 논수골 고갯마루에 있다가 왕온묘를 찾아갔다. 그러나 어떤 표식도 보이지 않아 그냥 지나쳤다. 다시 거슬러 가다 보니 좁은 입구에 돌로 된 오름길이 나있다. 동백나무가 줄지어 선 길 끝에 왕온묘가 모습을 드러냈다. 직경 7m 정도의 원형봉분에 호석과 석인상까지 조출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도굴당한 채 방치되었던 것을 수습해서 재정비하고 해마다 祭도 올린다고 한다. 왼쪽 20여m 아래 솔나무 숲 사이로 타원의 긴 둔덕이 나타났다. 말무덤이라는 묘비명이 인상적이다. 비운의 왕이지만 쓸쓸하지는 않게 주군에 대한 충성의 결말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 같다.

- 01. 용장산성 왕궁터 복원 사진, 진도군청 제공
- 02. 돈지벌 궁녀돌방
- 03. 용장산성 왕궁터 기와편
- 04. 남도석성 만호비

# 5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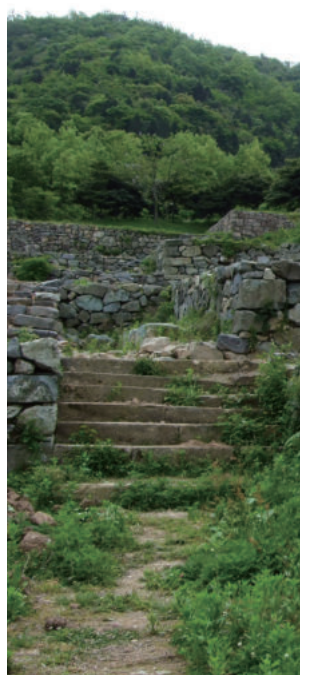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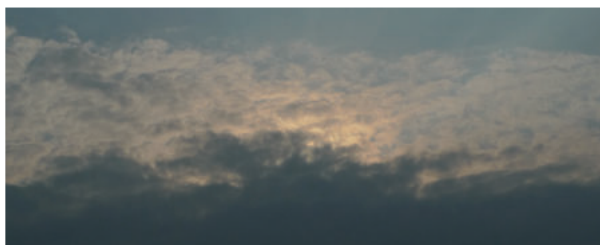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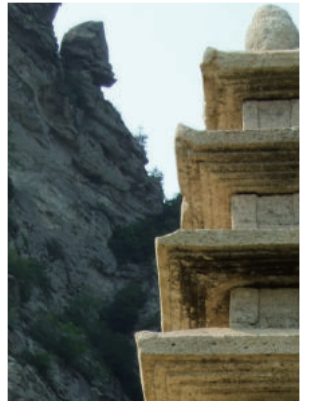
한편 피신중이던 女妓·及唱 등 삼별초 궁녀와 부하들은 몽고군에게 붙잡히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한다며 만길재 부근 둔지벌 둑병에 몸을 던졌다. 부여 낙화암에서 몸을 던진 3천 궁녀의 넋이 진도에 되살아난 것 일가. ‘궁녀뒹병’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비오는 날이면 여인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전해진다. 수심이 깊었다고 하나 이제는 농지로 다 매워지고 작은 물웅덩이만 남아 쓸쓸함을 더한다. 초라한 육각 정자와 튼실한 동백나무 한그루가 그나마 넋을 달래주고 있다.

남쪽으로 퇴각하던 배중손은 약간 명의 부하들과 함께 남도석성에서 “이 목숨 다할 때까지”를 외치다가 끝내 전사한다. 진도가 완전히 함락되었다. 남도석성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평탄한 대지 위에 축조한 평지성이다. 서망산과 망대산 사이 內海에 자리잡아 남동리 마을 대부분을 감싸고 있다. 밖에서 보면 S자형 曲面으로 외부

로부터 가려져 있고 산에서는 적을 감시하기에 좋은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다. 높이 5.1m에 둘레가 610m에 이르고 동·서문과 웅성이 설치된 남문이 남아 있다. 성벽 위를 걸어보았다. 돌로만 쌓은 성벽 위에 커다란 고목이 지난한 세월을 품은 채 넉넉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멀리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다. 지금은 낭만에 젖게 하지만 그 옛날 수시로 쳐들어오는 외적 떼에 치를 떨었을 것이다. 성안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민가 몇 호 중 군데군데 빈집이 방치되어 흉물스럽기까지 하다. 郡 주도하에 마을개선작업이 진행된다고 하니 머지않아 깔끔하게 정리된 성곽마을을 기대해본다. 이미 중앙에는 옛 관아와 객사가 복원되어 있다. 남문 밖으로 흐르는 세운천(가는골) 위에 쌍운교, 단운교 2개의 홍예교가 눈길을 끈다. 판돌을 세워 쌓은 아치형 모양이 작지만 아주 단단하고 아름답다. 그 위에 흙을 돋우고 잔디까지 심어 양증맞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섬 진도에 삼별초가 들이닥쳤다. 벽파진에서 시작해서 남도석성에서 끝이 났다. 진도 백성들은 자신들을 해칠까봐 무척 경계했을 것이다. 그러나 항몽의 정신으로 ‘우리가 고려 정통정부다’라는 대의 아래 목숨을 바쳐 싸웠다. 민중에 의한 새로운 터전이라는 새 역사를 쓰면서……. 10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땅은 초토화되고 진도 백성들은 닳치는 대로 몽고에 끌려가 섬은 완전히 무인지경이 되었다. 순진무구한 애국심이 무참히 짓밟혔다. 하지만 그 징한 역사의 한을 진도는 신명으로 풀어냈다. 진도만의 힘이다. “이 목숨 다할 때까지!” 그들의 외침이 귓전에 계속 메아리친다. 🇰🇷





다려가오 날 다려가오 우리 남 뒤따라서 나는가네  
 왜왔던고 왜왔던고 울고나 갈길을 왜왔던고  
 만경창파에 두들음드배  
 어기여차 어야디여라 노를 저어라  
 오늘갈지 내일갈지 모르는 인생  
 내가 심은 호박넝쿨이 소담장을 이룬다  
 노다가세 노다가세 저달이 떴다지도록 노다가세  
 〰〰〰아리랑아리랑아리랑아리랑아리랑



## 축제식 상·장례풍속과 다시래기

글 이경엽 \_ 목포대학교 교수

진도에서는 초상이 나면 마을 주민들이 모여 밤샘을 하며 노래와 놀이를 펼치고 노는 전통이 있다. 상가는 술과 음식을 준비하고 문상객들은 밤새워 윷놀이와 북장구를 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춘다. 또 무당을 불러 굿을 하며 주민들이 어우러져 놀이판을 벌인다. 그리고 이튿날 운상을 할 때는 상여행렬 앞에서 풍물을 치고 상여소리를 부르며 간다. 마을 부녀자들이 상여에 길베를 메달아 어깨에 메고 운상 행렬을 이끌고 가면서 상여소리를 부르고, 쉼 참에는 놀이판을 벌이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다. 장례를 치르는 전 과정이 음악과 노래, 놀이가 있는 축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초상이 나면 厄喪, 好喪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상가 분위기가 달라진다. 액상이 아니면 놀이가 펼쳐지는 게 일반적이고, 호상은 으레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조성된다. 2003년 6월에 필자가 관찰한 진도읍 포산마을 초상집의 분위기는 외양으로만 본다면 잔치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83세로 죽은 부친을 위해 자식들이 무당을 불러 씻김굿판을 마련했는데, 환갑잔치로 착각할 만큼 시끌벅적하고 활기찼다. 문상 온 사람들도 이런 분위기를 즐겼으며, 주민들 중에서는 우스갯소리를 하고 노래와 춤을 통해 그것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도 있었다. 굿청 근처에서는 윷놀이와 화투판이 벌어지고, 마을의 부녀회원들은 놀이판에서 돈을 건어 이튿날 노래방에 갈 비용을 마련하기도 했다. 부녀회원 중 한 명이 노끈에 여러 개의 고추를 묶어 그것을 허리에 차고 춤을 추고 다니며, 자신이 망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던 여자라고 하면서 ‘큰고추’였을 때 만났어야 하는데, ‘작은 고추’일 때 만나 아쉽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이것에 대해 망자의 큰 사위는 부녀회원들에게 돈을 주면서 “아이고 장모님, 서방님 죽었는데 그렇게 좋습니다?”라고 대꾸했다. 또한 큰 사위는 망자상 앞에서 절을 할 때에 눈에 침을 발라 짝으며 통곡하는 흥내를 내고 나머지 가족들도 그 분위기에 동조했다. 그리고 굿상에 올릴 현금이 바닥나자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며 “장인어른, 요즘에는 카드로 결제한답니다. 오늘 제가 카드로 천만원 정도 쓰겠습니다.”라고 하며 바닥에 카드를 굿고 비밀번호 누르는 흥내를 내었다. 이와 같은 놀이는 당골의 굿이 진행되는 한쪽에서 계속되었고, 굿 중간에는 친인척과 이웃들이 굿청 곁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놀이를 즐겼다. 이런 놀이 분위기는 굿이 끝나고 밤샘을 하는 내내 계속 이어졌다.

상가의 장례놀이는 진도를 비롯한 서남해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상가에 가보면 곱머리 씻김굿을 자주 볼 수 있고, 굿이 없는 경우라도 윷놀이와 화투판이 만들어지며 주민들의 놀이판 역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굿의 현장에서는 무녀의 굿 도중 청중들이 나와 무악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굿거리 사이에는 아예 놀이판을 만들어 놀기도 한다. 놀기 위해 굿을 하고, 상가에 모여든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을 받을 만큼 연희성이 녹아 있다. 축제식 장례풍속은 진도만의 유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옛기록을 보면 그런 모습이 잘 남아 있다. 경남 남해에서 유배 생활을 한 유의양의





『남해문견록』에서는 ‘섬 중의 풍속은 아버지의 장례를 모실 때 수일 전을 기하여 집에 차일을 치고, 술과 고기를 많이 장만하여 동리 사람들을 모아 각별히 많이 먹고 무당과 점쟁이를 모아 아침부터 밤이 되기까지 굿을 하고 새벽에 발인하여 갈 때에 북과 장구를 치며 피리와 저를 불어 상여 앞을 인도하여 산까지 간다’고 적고 있다. 그는 남해의 장례풍속에 대해 사리를 판별하지 못하고 인륜에 어긋난 행실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술과 고기를 마련하여 풍류를 갖춰야 착한 상주와 장사를 잘 치렀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기록을 남긴 유의양은 지배계층다운 성리학적 시각으로 남해의 풍속을 대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지배계층은 ‘음사’, ‘폐풍’이라고 비판하지만, 민중들은 음악과 잡희를 갖춰 치른 장례를 선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薄葬’이라며 대립된 시각을 보여준다. 지배계층은 중국에서 들어온 예서의 기준에 비추어 인륜을 운운하지만, 민중들은 중국식의 기준이 아닌 전래의 풍속에 의거해 장례를 치르고 그것을 미덕으로 평가했다.

진도의 축제식 장례풍속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다시래기다. 다시래기는 상가 마당에서 펼쳐는 연극이다. 다시래기라는 말의 어원은, ‘다시나기’(다시 낳다) 또는 ‘다시락’(多侍樂;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즐긴다)에서 나왔다. 진도에서는 출상 전에 상가에서 밤샘을 하며 놀 때 다시래기를 연행하고, 출상 시에는 북과 장구, 팽과리를 치면서 노래하고 춤추며 죽은 이를 운상해왔다. 물론 모든 경우에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집의



호상 시에 다시래기를 연행했다. 유교식 상장례를 기준으로 본다면 특이한 것으로 취급하기 쉽지만 우리 민족의 오래된 장례풍속 중의 하나다. 『隋書』 동이전 고려(고구려)전에 의하면, ‘처음과 끝에는 슬퍼하며 울지만, 장례를 하면 곧 북을 치고 춤추며 음악을 연주하며 죽은 이를 보낸다(初終哭泣 葬即鼓舞作樂以 送之)’라고 적고 있다. 진도의 장례는 옛기록에서 묘사하는 방식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또한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사람들을 널리 대접하고 무당굿을 하고 잡희를 벌이며 논다’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도 일치한다. 이런 점에서 다시래기는 유교 유입 이전부터 지속된 민족적 양식이며 민중적 신명을 간직한 장례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

진도 다시래기는 가상제놀이·거사와 사당놀이·상여놀이·가래놀이·여흥의 순으로 진행된다. 가상제놀이는 가상주가 등장하여 놀이의 취지를 설명하고 거사·사당·중 등이 차례로 나와서 자신의 특기를 자랑한다. 거사와 사당놀이에서는 봉사·봉사처·중의 삼각관계가 벌어지고 봉사처가 애를 낳는다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상여놀이는 상두꾼들이 상여를 어깨에 메고 상여소리를 부르며 노는 대목이다. 가래놀이는 무덤을 만들고 가래질을 하는 가매장 의식을 연출한 내용이며 여흥은 뒷놀이이다.

다시래기 공연은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고 상가 마당에서 재담을 하고 춤과 놀이를 펼치고 노는 놀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장례 공간에서 연행된다는 점이 색다르며, 그 연행 내용이 파

- 01. 상가의 굿판
- 02. 상가의 굿판에서 박수치고 노래 부르는 주민들
- 03. 상가의 윷놀이
- 04. 상여행렬 앞의 호상계놀이
- 05. 다시래기
- 06. 상여행렬



06

격적이어서 관심을 끈다. 사당과 거사가 나와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고 가무를 즐기다가 아이 낳는 장면을 연출한다. 거사·사당놀이에서 보이는 성적 표현의 파격과 아기 출산의 의미는 각별하다. 초상집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노는 것은 죽음을 문화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적인 재담과 아기를 출산하는 것은 죽음과 배치되는 연극적 설정이다. 상가에서 공연되는 다시래기는 죽음의 결손을 성적인 활기와 새 생명의 출산으로 극복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요즘에는 다시래기가 상가 마당에서 진행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대신 진도 현지의 공연 무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토요민속여행’(매주 토요일 오후) 무대에서 상설 공연으로 접할 수 있다. 거사 역의 강준섭의 해학적인 연기가 돋보이고 사당 역을 맡은 김귀봉의 여장 연기도 폭소를 유발한다. 다시래기가 여전히 특별하고 신명난 공연이라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



## 진짜 소리는 노래방에 있다

진도는 독특한 섬이다. 울돌목의 거친 물살을 헤치고 진도에 들어오면 섬을 잊게 된다. 제법 모양을 갖춘 산과 너른 들판 뿐이다. 바다 내음이 없으니 진도는 육지 같다. 또 하나의 특색은 소리의 고장이라는 점이다. 진도 가서 소리자랑 말라는 말이 있다. 진도아리랑을 비롯해서 강강술래, 남도들노래, 진도만가, 진도북놀이, 소포걸군농악 등 풍성한 가락이 있다. 그래서인지 억센 사투리 속에도 정감어린 운율이 살아있다. '네'라고 대답하지 않고 웃으며 '그라제'라고 한다. 우리말이 이리 살가웠나 꺾속이 다 순해진다.

글 하영남\_편집회원

소리 맛보기는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의 토요일속여행으로 시작했다. 출연자들의 가락은 유려하다. 춤사위와 장단이 열기를 뿜어낸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통해 듣는 소리는 여전히 살짝 허기진다. 짙은 화장에 가려 표정을 읽을 수 없다. 진짜 소리를 들으려면 소포리 노래방에 가보란다. 흔쾌히 취재를 허락한다는 통보를 받고도 마음이 복잡하다. 기껏 구경하고 쓸 거리가 없으면 어찌나.

소포리를 찾아가는 길에는 초록만 무성하다. 주말의 섬이지만 요란한 간판의 횡집도 관광객도 없다. 작고 소박한 마을과 들일에 여념 없는 사람들만 멀리 펼쳐진다. 들노래 한 자락을 들을 수 있려나 귀를 기울여도 바람소리 뿐이다. 커다란 창고 건물 벽에 그려진 그림이 노래를 부른다. 다 왔나보다. 발일하는 분께 회관이 어딘지 물었다. "소리 들으러 왔는가? 환장 하겠네" 머리에 썼던 수건을 탈탈 털며 급히 마을로 간다.

그들이 소리꾼이다. 밭 가운데 웅기종기 모여 대파 모종을 심던 그분들이다. 검게 그을린 얼굴과 깡마른 체구는 여느 농부와 다름없다. "소리가 될란가 모르겠네" 할 때까지 나도 걱정스러웠다. 두둥둥 장구가 소리를 불러낸다. 흥타령이다.

꿈이로다 꿈이로다 모두가 꿈이로다 꿈 깨니 또 꿈이요 깨인 꿈도 또 꿈이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가는 인생 부질없다 깨려하는 꿈은 꾸어서 무엇 할거나

소리보다 표정이 먼저 꿈결로 접어든다. 살짝 미소를 머금고 사설을 푼다. 부드럽고 애잔한 목소리다. 꿈이라 못내 아쉬운 듯, 차마 눈을 뜨지 못한다. 잠깐 사이 부질없는 한 생애가 지난다. 이곳이 꿈인가 생시인가. 방안이 치자빛으로 물든다. 기교가 아닌 마음이 부르는 노래이다. 명칭도 무대도 없지만 삶의 깊이가 소리를 풀어낸다.

다섯 명이 윤창을 한다. 아이고 데고 어허 성화가 났네. 소리를 받는 그 짧은 순간 接神이 이뤄지나 보다. 무리에서 한 발짝 나서며 숨을 고른다. 조명을 비추지 않는데도 그야말로 자체발광이라도 하는 것일까. 얼굴이 달처럼 환해진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일을 시작했다는 흔적은 찾을 수가 없다. 수줍은 소녀가 님 만나러 가듯 설레는 모습이다. 온 몸으로 애절한 가사를 끌고 간다.

창밖에 국화를 심고 국화 밑에 술을 빚어 놓으니 술 익자 국화 피자 벗님 오자 달이 돈네  
아이야 거문고 정 처라 밤새도록 놀아보자



달밤에 국화주를 놓고 오랜 벗님과 해후한 그녀는 환장하게 예쁘다. 한창 바쁜 때 찾아온 우리를 보고 놀라던 농군들이 소리를 잡고는 밤 깊은 줄 모른다. 술이 돌고 흥이 일자 춤까지 춘다. 이렇게 붙씩 찾아오면 귀찮지 않을까, 피곤하지 않을까, 걱정은 우리만 하고 그들은 밤새도록 놀 작정인가 보다. 우리도 그녀들도 내일 일을 잊고 만다.

소포리에 '노래방'이 생긴 건 꽤 역사가 깊다. 6·25전쟁 전에는 마을마다 노래방이 있어 소리 선생을 모시고 배우기도 했단다. 원래 염전이었던 소포리에 80년대에 방조제가 생겼다. 주업이 농업으로 전환되고 생활이 안정 되면서 노래방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농한기에 소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놀던 작은 노래방이 어떻게 소포전통민속전수관이 되었을까?

“제가 2002년 소포리 이장이 되었을 때 마을 어르신들께 물었지요. 무얼 해 드렸으면 좋겠느냐고. 다른 마을 같으면 회관을 지어 달라 관광을 시켜 달라 하는데 그때 그분들 소원이 무엇인줄 아세요? ‘소리를 원 없이 듣고 잡네’ 였습니다. 세상에 이리 아름다운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병철 이장은 전수관장이 되어 행사를 총괄 기획한다. ‘진도대파는 겨울에도 자란다’는 현수막처럼 그들은 쉽없이 모여 노래를 불렀고 그것이 세상에 알려졌다. 어디서든 초청만 하면 덜 바쁜 회원들을 모아 팀을 꾸리고 공연을 했다. 학계의 관심을 받기도 하였고, 정부의 지원으로 전수관 건물을 세울 수 있었다. 지금은 공연과 더불어 체험학습을 진행하지만 여전히 노래는 업이 아니라 취미생활이다. 그들은 노는 것이 재미있고, 구경꾼들은 흥에 겨워 저절로 배우는 것이다.

진도사람은 소리를 좋아한다. 그중에도 소포리 사람들은 삶과 소리가 한 몸이다. 300명가량 되는 주민 중에 농사지며 소리하는 사람이 백 여명이 된다. 그들에게 노래 부르는 사연을 물으면 석달 열흘이 부족하다. 고된 노동 끝에 마시는 한 사발 막걸리처럼 즐거운 휴식이란다. 소포리에 가면 한국의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을 만날 수 있다. 맑은 영혼이 부르는 노래, 한 무리 들꽃처럼 잔잔하다. 그 진솔함이 심금을 두드린다. 🍷







글 조애경 \_ 편집회원

싱그러운 상록수림 속 굽이굽이 고갯길을 넘어서니, 우직하게 솟아 있는 첨찰산 자락 아래, 담담하게 '雲林山房'이 자리하고 있다. 깊은 산속 朝夕으로 안개가 피어올라 구름숲을 이룬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말기 남종화의 대가 小癡 許鍊이 말년에 고향으로 내려와 자리를 잡고 지은 화실이자 거처이다. 고목 사이로 마치 대문인 듯 세 칸짜리 정자가 길손을 맞아준다. 수련이 가득한 연못 가운데 배롱나무가 멋진 자태를 보이며, 그 뒤로 정갈하게 기와가 올려진 ㄷ자형의 화실이 있다. 야트막한 돌담을 돌아가면 소박한 초가 두 채가 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뒷마루에 걸터앉아 허련의 일상을 그려본다. 허련의 초상을 모신 雲林祠와 문중의 祭閣인 斜川祠가 있다.

허련은 陽川 許氏 孫으로 당시 주요 유배지였던 진도의 퇴락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20대에 초의선사의 배려로 해남 대흥사에 머물며 녹우당에서 『공재화첩』을 빌려 모사하며 화법을 익혀갔다. 초의선사가 전해준 허련의 그림에서 김정희는 그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고, 사제의 연을 맺게 된다. 서화 기법 뿐만 아니라 깊은 안목과 내면의 힘을 갖추도록 당부한다. 원나라 4대 화가 중 大癡 황공망과 견줄 만 하다하여 소치라는 호를 지어주었고 "압록강 동쪽에 이만한 그림이 없다."는 칭찬까지 아끼지 않았다. '詩·書·畵의 三絶'로 일컬어지는 허련은 산수화와 사군자를 잘 그렸으며, 특히 묵모란에 뛰어나 '허모란'이라 불리기도 했다. 현종을 모시고 그림을 그린 것을 비롯해 신관호, 권돈인, 정학연 등의 후원과 관심 속에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49세가 되던 해 제주도까지 쫓아가 모시던 스승이 돌아가자 그도 낙향을 하고 운림산방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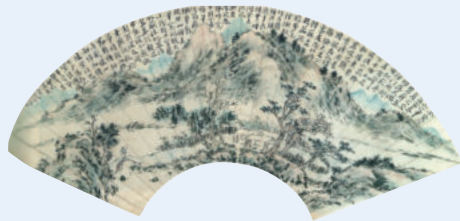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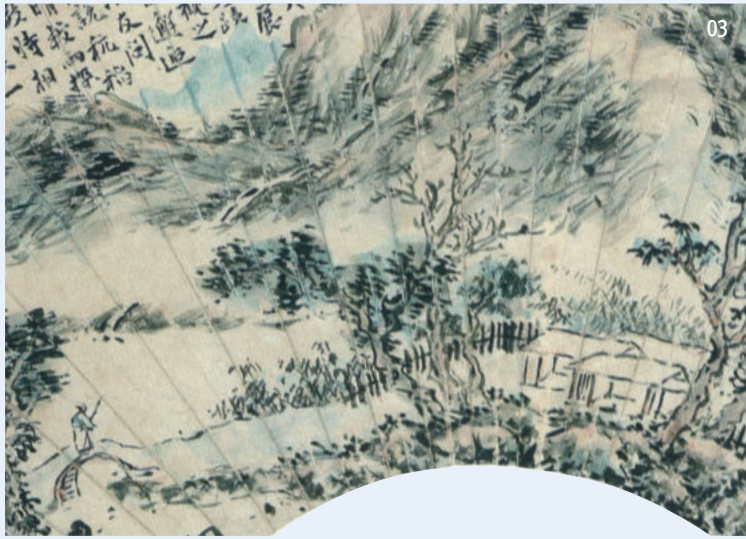
스승의 죽음에 모든 것이 허망해지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인맥과 명성이 일장춘몽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허허한 마음을 운림산방에서 채워갔다. 『운림잡저』에 '운림산방으로 인해 마음이 스스로 기뻐고 내 성품에 맞는다'라고 적기도 했다. 그가 이곳을 그린 <선면산수도>를 보면 화폭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웅장한 주산과 몇 그루의 나무 아래 작은 집 두 채가 있고, 구부정한 노인이 다리를 건너 집으로 향하고 있다. 거친 듯 힘차게 표현된 산과 바위, 즉 자연은 노인과 집으로 대변된 그의 삶을 감싸안고 있는 듯하다. 지금의 모습과는 거리가 느껴지는데 그것은 눈에 비쳐진 풍경에다 마음속에 담긴 운림산방의 이미지를 더해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몽연록』과 『속연록』 등을 저술하였고, 호남지방 등을 周遊하면서 자신을 알리며 많은 작품을 남겼다.

운림산방은 허련 한 사람만의 혼이 깃든 곳이 아니다. 아들 米山 許滢, 손자 南農 許榘과 林人 許林, 그리고 직계 혈족은 아니지만 진도에서 태어나고 허형에게 그림을 배운 毅齋 許百鍊과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운림산방의 운명도 그리 평탄하지는 않았다. 아버지의 기대를 받던 큰 아들 許滢이 젊은 나이에 죽자 넷째 아들 허형이 가업을 물려받는다. 허련은 유언에서

자손들이 벽촌에서의 간헐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자신이 죽은 후에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읍에 나가 살기를 당부하였다. 이는 그가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몸소 체득한 가치관에서 나온 당부였을 것이다. 허형이 진도를 떠나면서 운림산방은 그 모습을 잃고 스러져갔다. 나무 한그루, 돌멩이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던 손길이 사라지고 묵향마저 흩어진 화실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소치가 내린 뿌리는 강한 생명력을 가졌다. 조부의 그림 세계를 이어받아 화단의 거목이 된 허건은 피폐해진 운림산방을 다시 복원하여 진도군에 기증하였고, 이제는 명승 제80호로 지정되었다. 26세에 요절한 동생 허림은 鮮展에 5회 입선하는 등, 불꽃같은 생을 살다갔다. 소치기념관에서 그의 작품 <朝>와 만났다. 아직 새벽안개가 걷히지 않은 듯 어스름한 빛이 깔려 있다. 능선을 따라 곡괭이를 멘 농부가 소를 끌고 걸어간다. 겨우내 얼었던 땅에는 푸른 생명의 빛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모진 추위를 견딘 나무에도 물이 오르고 있다. 그 생명력은 마치 흘러가는 물결처럼 산야를 적신다. 서정적인 풍경이지만, 그 안에서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의 생명력처럼 시대적 아픔을 이겨내고 희망을 잃지 말자는 작가의 강한 메시지가 전해진다.





최근 소치기념관의 명예관장이 된 허림의 아들 林田 許文은 '안개와 구름의 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200여년의 세월을 거슬러 운림산방에 주인의 숨소리가 다시 들리게 되었다. 그 뒤를 이어 許塨을 비롯하여 許在, 許淸圭, 許垠 등이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소치기념관에서 5대에 이르는 허씨 일가 화풍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전통의 계승과 발전, 그리고 시대의 요구와 변화'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좋은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평단의 주목을 받는 작품들을 직접 볼 수 없음이 안타까웠다.

소치기념관과 진도역사관까지 둘러보고 나오는데 들리는 한 꼬마의 목소리, "엄마, 여기 외국 공원 같아!"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했다. 넓은 잔디밭과 남도전통미술관, 소치기념관, 진도역사관 등이 마치 공원처럼 조성되어 <선면산수도> 속의 그런 운치가 전해지지 않았다. 꼬마의 말 한마디가 내 맘을 딱 집어냈다. 길손의 욕심 일지는 모르겠으나 소치선생의 손길 그대로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담장에 기대 대나무의 흔들림이 아쉬움처럼 들려온다. 🍁

01. <朝>, 허림, 1935년, 127 × 127cm, 소치기념관

02. 운림산방 전경

03. <선면산수도>, 허련, 1866년, 20 × 60.8cm, 서울대학교 박물관



## 자연이 선물한 여름나기 용품

01

글 최은수 \_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세모시 옥색 치마'의 세모시는 열 새가 넘는 가는 울로 길썩한 고운 모시를 말하지만, 요즈음 서천의 한산모시 공방에서도 10새 베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초복과 중복이 있는 칠월이 되면 이제까지 노출을 꺼려 매무새를 꼼꼼히 단속하던 사람들도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간편한 차림새를 찾게 된다. 삼국시대부터 즐겨 입은 모시나 삼베는 살갓에 잘 붙지 않고 인체와 의복 사이에 통풍 공간을 확보해주므로 주로 여름철 옷감으로 안성맞춤이었다. 또한 혼례용 삼작 저고리의 가장 속옷으로 받쳐 입는 속적삼은 모시로 만들어 결혼생활에서 한평생 모시처럼 시원한 일만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원하기도 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여름을 나기 위해 제호탕\*이나 삼계탕 같은 음식을 먹고, 시원한 계곡 근처에서 탁족놀이를 하며 시를 읊는 풍류를 보여주었다. 등등걸이나 등토수를 착용함으로써 땀이 몸에 배지 않게 하는 슬기를 가졌으며, 계절에 맞는 옷감과 장신구를 어울리게 착용하는 멋을 아는 민족이었다. 이러한 여름나기 용품 중 재미있는 유물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 \*제호탕

제호탕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여름철 청량음료 중 최고로 여겼던 것으로, 오매육을 여러 한약재에 재워두었다가 냉수에 타서 마시는 것이다. 갈증이 해소되고 몸을 보신해주는 역할을 한다.

## 땀이 배지 않는 속조끼, 등등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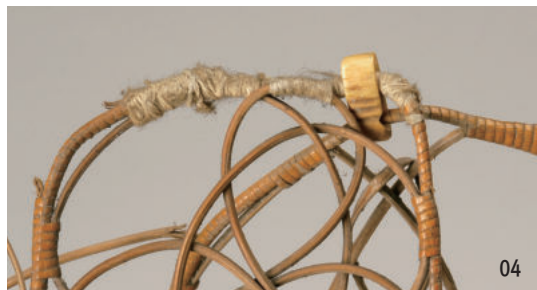
남성들의 평상복인 바지 저고리는 여름에는 삼베나 모시로 만들어 입었으며, 저고리 밑에는 등거리 적삼, 바지 밑에는 잠뱅이를 각각 밑받침 옷으로 입었다. 이 중 등거리 적삼은 여름에 땀이 저고리에 스며 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삼베로 만들어 깃을 없애고 소매는 짧거나 아주 없는 형태로 하여 주머니를 달기도 하였다. 주로 여름에 모내기 할 때는 땀을 잘 흡수하면서 시원한 등거리 하나만 입었으며, 농민들은 곁에 주머니를 달아 담배 등 소지품을 넣고 다니기 편하게 만들기도 했다. 정월 대보름에 등걸이를 해서 입으면 1년 동안 신수가 좋고, 더위를 먹지 않는다는 풍습이 있다. 또 종이로 등거리를 만들어 저고리 속에 입었다가 대보름에 남몰래 불에 태우면 액을 면한다고 한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입혔던 등거리를 벗겨 남몰래 달집 속에 감추었다가 함께 타도록 하였다. 이는 여름용 노동복인 등걸이를 불에 태움으로써 여름날의 더위도 함께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 풍습으로 생각된다. 등등거리(藤櫛子)는 등거리 적삼 밑에 입는 것으로 가는 대로 만들거나, 등나무의 가는 줄기를 구부려 성글게 엮어서 조끼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임원경제지』 섬용지(贍用志)의 기록에 ‘등줄기를 엮어서 배자형으로 만들고 여름에 피부에 직접 닿게 입어 옷에 땀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준다. 또 말총으로 만든 것, 털을 넣어서 만든 것은 모두 고가의 진귀한 것이고, 서민들은 대나무나 담장이풀, 모시풀로 만든 것을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등등거리 유물은 등줄기로 만든 것만 남아 있고, 말총이나 털을 넣어서 만든 것은 토수만 볼 수 있다. 등등거리와 함께 착용하는 것으로는 깃 형태로 만들어 목에 끼우는 것과, 저고리 소매의 손목 부분에 끼워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소매에 땀이 배지 않게 하는 토수가 있다. 여름용 토수로는 가는 대로 만든 것, 말총으로 만든 것, 등나무 줄기를 엮어서 만든 것이 있다.

## 비옷으로 입는 도롱이. 겨울에는 이불로도 사용하다

도롱이는 각 지방별로 도랭이·두랭이·둥구리·누역·도롱옷·드랭이·도렁이·되랭이·되롱이 등의 사투리가 있고, 옛말로는 되롱·누역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국적으로 많이 사용한 것 같다. 『세종실록』에는 사의(蓑衣)와 우롱(雨籠)이 자주 등장하고, 『숙종실록』에는 추운 겨울에 군사들이 이불 등의 방한구로 이용한 기록으로 보아 조선시대에도 우장용 또는 방한용으로 자주 사용했음을 설명해준다. 민속조사를 하다보면 도롱이가 여름엔 우의가 되지만 겨울에는 산이나 들에서 밤을 새울 때 이불로 많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롱이는 띠(茅草)나 그와 비슷한 풀, 벼짚·보릿짚·밀짚 등을 재료로 하여 만드는데 안쪽은 재료를 촘촘하게 고루 엮어 마치 뜨개질한 모양이 되고, 겉은 풀의 줄기가 아래쪽으로 향



02



04



03

하게 되어 있어서 층층이 치마 같은 형태이다. 초가지붕에 빗물이 흘러내리듯이 비가 오면 빗물이 겹으로만 흘러내리고 안으로는 스며들지 않아 매우 과학적인 비옷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안에는 양쪽 팔을 끼울 수 있도록 끈을 달아서 마치 가운데처럼 쉽게 걸칠 수 있게 하였다. 농촌에서는 비오는 날 외출을 하거나 들일을 할 때 어깨·허리에 걸쳐서 사용하였으며, 머리에는 삿갓을 써서 완전한 우장(雨裝)을 갖추었다. 강화지방에서는 남자들이 입는 도롱이를 '도롱'이라 하고, 여자용은 '가장'이라고 하였는데 머리 위로 완전히 쓸 수 있게 하고 길이도 발목까지 올 정도로 길었다. 1950년대까지도 시골에 가면 헛간 앞에 걸쳐진 도롱이 한 두개를 쉽게 만날 수 있었고, 1970년대에도 산간지방에서는 다소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거의 대부분 고무비옷이나 비닐비옷으로 대체되었다.

### 굽 달린 비신, 나막신

덴마크를 여행한 사람 중에는 예쁘게 채색한 나무신을 보면서 우리나라 나막신을 떠올린 기억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나막신은 풍속화나 흑백사진에서 보면 계절에 상관없이 남녀노소가 즐겨 신었던 것으로 보이며, 문헌에는 우천시 누구나 신는 신발로 되어 있다. 유물로는 아이의 장수와 복을 기원하며 생일선물로 준 나막신, 신코에 무늬를 새겨 넣은 여성용 신, 굽이 다 닳아서 없어진 신 등 다양하다. 한자어로는 목극(木屐)·극(屐)·리극(履屐)·목혜(木鞋) 등의 기록이 나오며 옛날에는 '겨지'라고 하였고, 근래에는 나무신의 와언(訛言)인 나막신으로 통칭되었다. 나막신을 언제부터 신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신장의 투르판 지역에서 출토된 나무신(안쪽에 직물을 붙이고 칠을 한 것으로 바닥에 굽은 없으나 발등이 좀 넓은 형태)이 6~7세기 유물인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시대에 사용하지 않았을까?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목극은 시골의 청빈한 선비가 신는 것이며, 이미 이 밖에도 피혜(皮鞋)·마리(麻履)가 있었다. 목극을 착용하는 것은 우청(雨晴)·조습(燥濕)에 통행하는데 오래 견디고 헤어지지 않는 것을 취해서이며, 목극은 즉 리의 최고의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제(製)가 있었으나 다만 초혜·피혜만을 신어 왔는데, 선조조 임진 전에 이것을 상하가 통착한 바 있었다. ...그러나 천자(賤者)나 어린 자는 존귀한 사람 앞에서는 감히 착용할 수 없었다' 라는 기록이 있어 상하가 통용되기는 임진난 이전이었음



을 밝히고 있다. 나막신은 나무를 구하기 쉬운 산간지방에서 주로 만들어졌으며, 통나무의 속을 파내어 배 모양으로 만들고 앞뒤에 굽을 단다. 그래서 실제로 신어보면 매우 무겁고 불편하며, 또 걸을 때 소리가 나서 귀한 자리에서는 신지 못하게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유물 중에 굽이 닳아서 없어진 것, 굽을 고쳐서 신은 것 등이 있어 나막신을 꽤 즐겨 신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 빗길에나, 겨울철에도 발이 땅에 닿지 않기 때문에 덜 시려서 좋았다고 한다.

### 부채모양 모자, 갈모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 쓰는 우장으로 원래 이름은 갓모[笠帽]이며, 우모(雨帽)라고도 한다. 실록에는 갓모에 관한 기록이 성종때부터 나오나 언제부터 썼는지 확실하지는 않다. 『청강선생후청쇄어(淸江先生鯁鯿瑣語)』에는 명종 때를 전후한 입제(笠制)의 설명에 우모에 대한 기록이 있어, 조선 전기부터 일반화된 것으로 생각한다. 갈모의 모양은 펼치면 위는 뾰족하여 고깔 모양이 되고 접으면 쥘부채처럼 된다. 기름을 먹인 갈모지(환지)에 가는 대나무로 칸칸이 살을 붙이고, 꼭대기에 닭의 벅처럼 생긴 꼭지를 달아 만든다. 비가 올 때 우산처럼 펴서 갓 위에 덮어쓰고 양쪽에 달린 실끈으로 턱에 매었는데, 갓 없이 쓸 때는 갈모테를 쓴 다음에 썼다. 그러나 사진이나 그림에서 보면 계절과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사용한 것 같다. 해가 내리 쬐이는 더운 여름날 양산처럼 쓰기도 하고, 눈 내리는 겨울엔 우산 대용으로 쓰기도 했다.

올 여름은 작년보다도 더위가 더 심할 것이라는 일기예보와 함께, 공무원들의 간편복장을 근무복으로 허용하는 공문이 발송되었다. 조금만 더워도 선풍기와 에어컨디셔너를 틀어야 사는 요즘 사람들……. 아이스 목도리, 냉풍 조끼, 얼음 앞치마까지 개발하여 좀 더 시원하게 여름을 나려고 애쓰는 현대인에게 등등거리 같은 친환경 재료로 만든 속조끼를 개발해 보는 것은 어떨까? 🐻



08

- 01. 갈모
- 02. 대나무 토수
- 03. 등등걸이
- 04. 03의 부분
- 05. 갈모
- 06. <눈오는 밤>, 폴 자클레
- 07. 나막신 시장
- 08. 나막신



## 유물이 간직한 시간의 깊이

글 문정원 \_ 회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어릴 적 시간을 거슬러가는 셈법이다.

시간의 지층이 쌓여 역사가 되고 그 단면이 펼쳐진 곳, 박물관이다. 그곳의 시제는 손꼽다 멈추고 다시 세어도 가늠되지 않는 먼 과거였다. 그런데 현재 발 미래 행이라고만 알고 있던 타임캡슐이 박물관에서 열렸다. '타임캡슐을 열다 -색다른 고대 탐험-' 전시가 그것이다. 고대에서 쏘아올린 타임캡슐의 목적지가 현대라니, 색다른 시간여행이다. 8~9세기의 신라시대 타임캡슐에서는 경주 월성지구 주변에서 발견된 우물과 그 속의 유물들, 그리고 창녕 화왕산 말흘리 유적의 유물들을 볼 수 있다. 나에게 우물은 40여년 전 파리를 머리에 얹고 광주리를 인 외할머니와 함께 기억된다. 할머니 손을 잡고 가면 아주머니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꼬맹이들은 가재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국립경주박물관 연결통로 부지의 우물에서 발견된 각종 동물 뼈와 토기, 기와, 두레박, 나무빗은 전혀 연상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부정탄다고 돌맹이 하나 던지지 못하게 한 곳이 우물이었는데 참 많고도 다양한 물건들이 나왔다. 우물이 아니라 보물창고 같은데 제사의식이 행해졌다고 한다. 그것도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기원하는 국가나 왕실 차원의 대규모 우물제사이다. 우물터 아낙네들이 관복을 갖춘 신하들로, 떠들썩한 소음은 경건함으로 바뀌는 상상을 하게 된다. 당시 무척이나 귀했을 동물(개, 고양이, 소, 말)을 넣고 토기들을 몇 단씩 쌓은 다음 과일을 넣고 마지막으로 우물 상석을 놓아 우물의 시간은 영원히 봉인된다. 10m 깊이의 우물 바닥에서 7.5m까지 쌓여진 유물들의 양은 상당하다. 조심스레 작은 조각 하나 하나를 우물의 심연에서 꺼내고 퍼즐 맞추듯 형태를 완성하던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이 전시실에 가득하다. 전시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동물뼈는 과학실 생물 표본을 떠올리게도 했다.



가장 관심이 간 것은 어린아이 뼈였다. 1200여년 전 10살이 안된 어린아이가 가졌을 천진함은 지금과 변함이 없을 텐데 무슨 사연으로 우물 속에서 영면하게 되었을까. 인신공양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실수로 빠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애처로움이 덜하지 않다. 우물 속에서 발견된 토기들이 일상에서 사용되지 않은 제의임을 밝혀주는 것은 일부러 떼어내 주둥이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 한다. 이러한 마음은 복숭아씨에서도 확인된다. 하늘의 열매이자 신성한 과일로 여겨지는 복숭아는 깨끗한 물에 대한 기원과 벽사의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어 잣, 밤, 매실, 모과보다 제사에 많이 쓰였다.

2003년 발견된 창녕 말흘리의 유물은 부처님과 관련된 것들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향으로, 소리로, 빛으로 전달하는 향로·풍탁과 불단을 장식하는 장엄구 등의 금동제품이다. 쇠조각으로 덮은 작은 구멍의 쇠숯 안팎에서 500여 점 출토되었다. 황금색은 어둡게 변색되었지만 지금도 정교함은 고스란히 남아 당시의 화려함과 장엄함을 짐작케 한다. 누구인지 확실치 않으나 다급한 상황이 있어 땅에 금동제품을 묻었을 텐데 당시 그들이 기약한 훗날은 언제였을까. 바로 돌



04



05

아와 부처님 말씀을 전하리라 다짐하며 땅을 파야했던 그들의 손이 한없이 떨리지 않았을까.

유물을 통해 만난 과거의 진실 찾기는 요원하기만 하다. 박물관 특설 강좌 시간, 어느 교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다. 그것은 신화이다.” 유물 한 점이 간직한 시간의 깊이만큼 상상력이 날을 이야기의 넓이는 한이 없을 것이다. 이번 전시는 고대의 누군가에게 미래였을 현대의 우리에게 숙제를 준다.

후손에게 보낼 타임캡슐에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 🍷

- 01. 어린아이 뼈
- 02. 우물모습
- 03. 쇠숯, 높이 41.2cm
- 04. 아가리를 떼어낸 토기
- 05. 금동오각형장식판, 길이 19.7cm



01

## 막새에 내려앉은 아름다움

글 박광례 \_ 회원

국립중앙박물관은 내 집 앞마당 같이 친숙하게 다가오는 곳이다. 이사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은 박물관이 바로 곁에 있다는 점이었다. 시공간을 품은 유물들을 언제나 지척에서 만날 수 있다니, 나의 내면이 충만 되는 것 같았다. 특설강좌를 신청하고 일주일에 한번 강의를 들으며 유적과 유물에 대하여 새롭게 배워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유적지를 다녀도 까막눈이나 다름없었기에 중국의 궁을 보고 와서는 우리의 궁궐이 보잘 것 없다고 함부로 말하였던 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이제는 크고 작음이 아닌 그 속에 내재된 고유의 의미를 바라보아야겠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깨어진 기왓장에서조차 그 시대의 문화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어릴 적 기억을 찾아가듯 와당이 진열되어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2층 유창종 기증실로 올라갔다. 기왓장과 막새가 유리장 안에서 세월을 꼭 품고 앉아 있었다. 말간 유리를 통하여 갓 태어난 신생아를 바라보듯 설레는 마음으로 한 점 한 점 바라보았다. 유년 시절이 물안개처럼 피어오르고 고향집이 떠올랐다. 형제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추억이 곳곳에 서려있는 집이다.

기와집 너른 마당 안에는 온갖 꽃들이 무서리 내릴 때까지 피고지고 하였다. 살구꽃이 봄날을 알리고, 여름에는 담장 곁에서 자란 아주까리가 한 그득하였다. 새벽을 가르던 수탉의 꼬끼오 소리도 들리는 듯하다. 고추잠자리 낮게 나는 가을이 오면 어머니는 마당에 멍석을 깔아 놓고 기왓장가루로 유기를 닦으며 일찌감치 한가위를 준비하셨다. 문고리가 손에 짹짹 달라붙는 겨울이 되면 봉황문 양으로 만들어 놓은 추녀 끝 물흡통으로 길게 고드름이 달렸다. 남동생은 그것을 무사의 칼처럼 휘두르며 놀았다. 와당을 보자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쌍조무늬 막새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미소가 새어 나왔다. 다정한 부부가 꽃피는 봄날 손잡고 소풍을 나온 듯 귀여운 모습이였다. 금방이라도 사랑노래가 들려 올 듯하다. 그 막새문양은 기러기일까? 일부일처로 백년해로하여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 간에 예를 다하며, 훌륭한 삶을 살아가라는 뜻으로 신혼집을 지을 때 사용하였을 것 같았다. 옛사람은 무엇을 기원하며 잘 보이지도 않는 처마 끝에 그토록 정성을 쏟았을까? 한껏 멋을 내고 염원을 담은 막새, 건물의 마무리에 기도처럼 새겨 놓은 아름다운 문양들이다. 지극한 불심으로 길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막새에 반영시킨 것이었으리라.

와당, 막새, 기와,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다. 하늘을 치고 살짝 오르는 기와지붕, 그 기와들이 처마 밑으로 내려와 허공으로 고개 내미는 그곳에 있는 와당, 지금은 고택이나 궁궐을 찾아 나서야만 볼 수 있게 되었다. 와당에 대한 강의를 듣고는 거실에 방치되어 있던 기와를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 그것은 빗물이 스미지 않도록 암키와와 수키와가 형성한 기왓골과 기왓등의 가장 자리를 막음하는 막새기와였다. 이름조차 몰랐던 것을 이제는 백제시대 연화무늬 와당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다. 시대에 따라 나타나는 가릉빈가무늬·바람개비·사슴·산과 구름·풀꽃무늬·비천무늬·보상화무늬·녕쿨무늬·모란무늬·귀면무늬·인면무늬 등 그 문양들은 참으로 수려했다.



국립경주박물관을 찾았을 때, 인면무늬와당 앞에서 난 숨을 멈추고 눈을 맞추었다. 경주 영묘사에서 출토된 살짝 웃는 모습을 한 인면무늬와당이다. 신비스러운 미소가 감도는 눈가에는 약간의 주름이 잡혀있는 듯하고 도톰한 볼은 낮익은 모습으로 정겹게 다가왔다. 천년 전 신라에 건너온 백제 도공이 잊지 못하는 연인의 미소를 새긴 것일까. 사랑하는 이를 전쟁터에서 잃어버리고 그의 명복을 기원하는 여인의 애절한 마음을 담아 낸 것일까. 감히 올려다 볼 수 없는 선덕여왕을 흠모한 청년의 미소는 아닐런지. 소리 없는 웃음은 온 몸을 사른 사랑이요, 이 땅의 온갖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을 이해와 사랑으로 품은 모습이었다. 서정주 시인은 “이런 모습이 있어 우리는 고향을 잊지 못하고, 조국을 못 잊고, 겨레를 못 잊으며, 끈질기게 견디며, 여러 천년의 역경을 안 죽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라고 하였다. 꿈속에서도 고향을 찾게 하고 내 겨레와 나라를 잊을 수 없게 만드는 모습이다. 그것은 자신을 떠나 오직 상대를 위해 한없이 가슴을 내어주는 어머니요, 자애로운 미륵보살이었다. 나를 바라보는 그는 ‘그래 네 마음을 다 안다’라며 다독여주는 것 같았다.

오늘날에는 최첨단의 건물이 소리 없이 바벨탑처럼 올라가고 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각박한 모습으로 치열하게 살아간다. 여유와 멋이 담겨있는 처마지붕 끝 아름다운 막새는 사라지고, 거대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각을 세우고 하늘을 찌르듯 서있다. 오늘따라 더욱 삭막해 보인다. 박물관 숲에서 새 두 마리가 햇살 고운 하늘을 향해 오른다. 막새에 앉아있던 그 새가 아닐까. 🐦

01. 인면문수막새, 신라, 전 영묘사지 출토, 국립경주박물관
02. 쌍조문수막새, 통일신라, 경주 안압지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 고려시대 아미타내영도와 임종의례의 관련성 시론

글 박혜원 \_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



도 1

來迎이란 맞이하러 온다는 의미로, 來迎圖는 수행자가 임종할 때 아미타불이 그의 앞에 나타나 서방극락정토로 왕생할 수 있도록 맞이해 가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도1] 『觀無量壽經』에서는 '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고 할 때 아미타불께서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비롯한 모든 권속들과 함께 금련화를 가지고 오백의 화신불을 나투시어 이 사람을 맞이하러 오시느니라... 진리의 아들이여,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설하고 있어, 내영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의미에 대해 알 수 있게 한다.

### 극락왕생을 염원한 고려인들

아미타불의 내영과 극락왕생을 설하는 정토신앙은 고려시대에 유행하였으나 독립된 종파로서 성립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대신 禪宗, 天台宗 등 기존의 종파에 폭넓게 수용되어 고려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신앙되었다. 만년에 백련사 제4세 법주가 된 眞靜國師 天頌은 『아미타경』을 열심히 지송함으로써 정토왕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아미타불의 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비록 대장경 가운데 일곱 권이 전적으로 정토를 찬탄하고 있지만, 오직 소본 『아미타경』이 가장 좋은 강요서이다. …널리 지송하기를 권하니… 진실로 날마다 이렇게 하여 마음마다 쉬지 않는다면 반드시 정토에 날 수 있으며, 아미타불이 와서 극락으로 맞이할 것이다.

한편 고려시대의 불교신앙에는 질병치료, 요양, 상장례, 추복 등 좀더 현세적인 기능도 포함되어 있었다. 고려시대 사원은 신도들의 삶과 매우 밀착되어 있어 신도들은 질병 치료나 요양을 위해 사원에 머물기도 하고, 질병이 심해지면 사원으로 옮겨 임종하기도 하였다. 죽고 나면 상장례나 추복의례 역시 사원에서 불교식으로 이루어졌다. 신도들이 불교적인 상장례 의식을 행하는 동기는 극락왕생에 대한 기대였다. 극락왕생에 대한 염원은 당시 고려인들의 임종과 상장례, 추선의식을 관통하는 주제였다.

### 고려인들의 불교식 임종의례

불교 신자들이 임종 후 서방정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희망을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절차로 구현한 것이 바로 임종의례이다. 임종의례에서 서방정토를 상징하는 서쪽을 향하여 앉거나 눕는 행위는 극락왕생, 즉 서방정토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장 단순하고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나아가 서쪽에 불상이나 불화를 두어 병자가 바라보게 하는 방법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는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이 부처를 따라 정토로 간다거나 정토에서 부처가 맞이하러 온다는 것을 스스로 효과적으로 이미지화할 수 있는 장치였다. 임종의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불교 경전과 문헌에서는 불상이나 불화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唐代의 승려 道宣(596~667)이 저술한 『四分律行事抄』의 「看病」 및 「葬送」 항목이다.

- ① 사원의 서북쪽 해가 지는 곳에 무상원을 두고 병자를 있게 함
- ② 건물 안에 입상을 안치하여 금을 입히고 서쪽을 향하게 함
- ③ 상은 오른손을 들고, 왼손에는 오색 번을 매어 끌리게 함
- ④ 병자는 상 뒤에 두고 왼손으로 번을 잡게 하여 부처를 따라 정토로 가는 뜻을 나타냄
- ⑤ 간병자는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림

『大藏一覽集』 「臨終品」 편에서도 임종의례시 병자가 죽기 전 정신을 집중하도록 돕는 시각적 방편으로서 불화를 걸어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 ① 향물에 목욕함
- ② 옷을 갈아입음
- ③ 편안히 앉거나 오른쪽으로 누워 합장하고 서쪽을 바라봄
- ④ 네모난 단을 세우고, 불화를 걸어 병자가 보도록 함
- ⑤ 병자에게 설법함
- ⑥ 부처의 이름을 부르고, 삼귀를 받고, 보살계를 받음
- ⑦ 눈을 찔다 감았다 하면서 부처님의 32상 80종호를 자세히 생각함
- ⑧ 간병하는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부처의 이름을 불러 줌
- ⑨ 병자가 목숨을 마침

그런데 이와 같은 불교식 임종의례는 실제로 고려에서도 행해졌다고 생각된다. 현재 남아 있는 고려시대의 비문과 묘지명의 내용을 통해 고려인들이 임종을 맞이했던 모습을 살펴보면, 임종에 임박했을 때의 절차로서 ①목욕하기 ②옷 갈아입기 ③단정히 앉거나 오른쪽으로 눕기 ④서쪽 혹은 부처의 상 향하기 ⑤계 받기 ⑥경전이나 부처의 이름 외우기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문헌에 규정된 임종의례에 매우 근접해 있다. 특히 正覺僧統 靈炤는 ‘서쪽 벽의 아미타불상을 향하여’ 임종을 맞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상은 벽에 있었다고 언급된 것으로 보아 그림 즉 불화였을 가능성이 높다.

大定 28년 무신년(명종 18, 1188) 정월 23일에 목욕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서쪽 벽의 阿彌陀佛像을 향하여 단정히 앉아 바른 모습으로 口시에 입적하였다.

조선 초기의 승려인 函虛己和의 어록에서도 上菴이라는 승려가 임종시 불상을 활용한 임종의례를 행한 기록이 있어, 아미타불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의례는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經文에 의지하고 또 西域法에 의지하여 바로 앞에 像을 設하여 손으로 번의 끝을 잡고 입으로 부처의 이름을 일컬어 부처를 따라 왕생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문득 조용히 시자의 염불소리를 듣다가 그만 그치라고 하였다. 염불을 하지 않고 미타불을 관상하고자 함이었는데 그 마음씀이 극진하였다.

이처럼 죽음의 순간 눈앞에서 계속하여 아미타불의 시각적 이미지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은 임종시에 병자가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아미타불의 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장치로서 활용되었을 것이다.

## 아미타내영도의 사용 공간

묘지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시에는 집이나 사원에서 임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임종자 뿐 아니라 아직 상태가 위중하지 않은 병자나 일반 신도의 경우에도 자신의 정토왕생을 미리 기원하는 의미에서 불전을 찾아 내영과 왕생에 대한 설법을 듣거나 미리 내영을 상상하는 연습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개경의 거찰이던 安和寺를 들 수 있다. 안화사의 중심 불전은 무량수전으로서 아미타불을 모시는 전각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미 중심 불전이 무량수전임에도 불구하고 서문 뒤에 미타당을 또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미타불 전각이 수행해야 할 기능이 여러 가지여서 두 개의 전각으로 분화 수용해야 했던 필요성을 의미한다. 미타당이 무량수전에 비해 주변적인 전각이고 절의 서쪽에 배치되어 있었다는 점, 서쪽 월랑에는 지장왕의 그림도 그려져 있었다는 점은 서쪽에 배치된 건물들의 기능이 상징례와 연관됨을 시사한다. 서문의 이름이 '孝思'라는 것 역시 조상숭배, 추복기능을 연상시킨다. 아마도 미타당은 소규모 전각으로 주요 예배의식보다는 요양과 임종 내지는 사자의 빈소, 유골 안치, 추복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아미타불상이나 아미타불화가 봉안되었을 것이고, 현재 남아있는 고려불화 아미타내영도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불전에 아미타내영도를 봉안하는 예는 조선 초기이기는 하나 무위사 극락전에서 실제로 발견된다. 무위사는 전남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사찰로, 극락전 후불벽에는 1476년작인 아미타후불벽화가 있고, 전각 내 서벽에는 아미타내영도[도2, 3]가 그려져 있었다. 조선 초에 건립된 무위사 극락전 내의 불화 배치는 고려시대의 아미타전각 내 불화 배치를 가장 가깝게 추정할 수 있는 예로서, 고려시대에도 아미타전각 내에서 서방정토를 암시하는 서쪽에 아미타내영도를 봉안하여 사용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 중국과 일본의 사용례

그렇다면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인접 국가에서도 유사한 임종의례가 있었을까? 중국의 경우 도선의 『사분율행사초』 등에서와 같이 불상이나 불화를 이용한 임종의례의 규정이 있었으며, 부처와 임종자 사이에 실제로 실을 연결하여 아미타불의



서방정토로 왕생케 하려는 임종의례가 당대에서 송대에 이르기까지 승려와 신도를 불문하고 유행하였다고 한다. 1269년 志磐이 편찬한 『佛祖統記』에 의하면, 樓汾이라는 여인은 병에 걸려 임종이 가까워 오자 승려를 불러 부처의 상을 걸고 염불하도록 청한 후, 눈을 감고 서쪽을 향해 염불하며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여기서 묘사된 누분의 임종 모습은 고려 비문과 묘지명이 증언하는 고려인들의 임종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일본에서는 실제 남아있는 작품들을 통해 임종의례의 일단을 볼 수 있어 더욱 흥미롭다. 일본 金戒光明寺 소장 <山越阿彌陀圖>[도4]의 화면에는 지금도 아미타불의 손에 펜 오색의 실이 남아 있어, 중국에서 유행한 ‘실을 연결한 임종의례’를 연상시킨다. 일본 知恩院 소장 <法然上人傳繪>에는 승려 및 속인의 임종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그 중 ‘隆寬律師臨終’ 장면[도5]에서는 隆寬의 앞에 아미타내영도가 걸려 있고, 아미타불의 왼손에 펜 실에 일종의 번이 연결되어 그 꼬리를 隆寬이 잡은 모습이 그려져 있다. ‘野宮左大臣公繼臨終’[도6] 장면에서는 주인공이 임종을 맞는 순간 벽에는 정면향의 아미타독존내영도가 걸려 있고,



도 4

오른쪽에는 승려가 의식을 집전하고 있다. 임종의례에 사용하고 있는 아미타내영도의 모습이 고려 아미타내영도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점, 벽에 걸어 놓기 알맞은 크기인 점은 고려 아미타내영도의 형태 및 크기와 공통되는 부분이다.

### 임종의례와 아미타내영도

고려시대에 정토신앙은 독립된 종파로서 성립되지는 못했으나 선종, 천태종 등 기존의 종파에 포함되어 널리 믿어졌다. 고려인들의 삶은 불교와 매우 밀착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찰은 예배와 수행의 기능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질병 치료, 임종, 장례, 유골 안치, 제사 등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었다. 이것은 정토신앙을 믿는 신도들이 가진 극락왕생의 소망을 반영한 것이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임종자가 따라야 할 임종의례를 제시하고 있다. 임종의례의 여러 절차 중 부처의 상을 향하는 것은 임종자가 부처를 따라 정토로 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지만, 고려시대 아미타내영도의 용도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이다. 고려시대 불교 신도들은 불교식 임종의례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부처의 상을 실제로 이용한 사례도 발견할 수 있다. 이 때 부처의 상은 아미타불의 정토의 방향인 서쪽에 둔다. 현재 남아있는 고려시대 아미타내영도들은 원래 어느 방향에 걸었는지 알 수 없지만 조선 초기에 건립된 무위사 극락전에는 아미타내영도 벽화가 서쪽에 그려져 있어 추정에 도움이 된다. 무위사 극락전과 같은 대형 전각이 아니라 개인의 임종의례가 진행되는 작은 공간이라면, 소형 족자 형식의 아미타내영도를 서쪽 벽에 걸 수 있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부처의 상을 임종자와 연결하는 임종의례가 유행하였다. 일본에서는 실을 꿰어 임종의례에 사용한 흔적이 있는 山越阿彌陀圖, 임종시에 아미타내영도를 사용하는 모습이 그려진 회관이 남아 있다. 고려시대 아미타내영도 역시 그림의 내용, 크기, 이동의 편리성 등 임종의례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어, 중국과 일본에서처럼 임종의례에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고려시대





아미타내영도가 전적으로 임종의례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며, 다른 불화들과 유사한 용도를 가지면서 임종의례에서 특히 선호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미타내영도의 특수한 쓰임새가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더욱 상세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

- 도1. 〈아미타팔대보살내영도〉, 고려 후기, 견본채색, 143.0×87.0cm, 일본 徳川美術館
- 도2. 무위사 극락전 내부 모습
- 도3. 〈아미타내영도〉, 조선 15세기, 토벽채색, 308×148cm, 강진 무위사 극락전 서벽
- 도4. 〈山越阿彌陀圖〉, 일본 가마쿠라 14세기, 견본채색, 83.3×101.0cm, 일본 金戒光明寺
- 도5. 〈法然上人傳繪〉 隆寛律師臨終 장면, 일본 가마쿠라 14세기, 지본채색, 일본 知恩院
- 도6. 〈法然上人傳繪〉 野宮左大臣公繼臨終 장면

#### 김춘실 \_ 충북대학교 교수

고려시대 아미타내영도의 용도를 당시의 비문 및 묘지명의 분석, 또는 일본 회화자료 등의 고찰을 통해 임종의례와 연관지어 본 논문이다. 불화의 효용면을 검토하여 당시 아미타내영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능했는지를 복원하고 있는 점에서 그동안 양식 고찰 위주의 불화 연구에 덧붙여 새로운 연구방면을 개척했다고 보여진다.

#### 방병선 \_ 고려대학교 교수

본 논문은 고려시대 아미타내영도의 용도에 주목하여 임종의례와 관련한 행사와 그 안에서 내영도의 역할을 문헌자료와 중국, 일본의 예를 들어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논리적이고 참신하다. 그러나 실례의 가능성이 있는 불화가 한 점 밖에 없고 고려와 조선시대 들어 임종의례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의 추가 연구가 기대된다.

#### 박정혜 \_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고려시대에 화축 형식으로 그려진 아미타내영도가 임종 순간, 유골의 사찰안치, 제사 등 임종과 관련된 의식에 폭넓게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경전, 비문 및 묘지명, 승려의 문집 등을 통해 증명한 논문이다. 아미타내영도가 임종의례와 관련된다는 견해가 완전히 독창적이거나 새로운 문제 제기는 아니다. 그러나 기존에 제기된 가능성에 대해 각종 자료의 분석을 더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였으며, 중국과 일본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여 한층 설득력 있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불화의 기능과 용도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촉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2013 세계박물관회연맹 서울총회

'2013년 세계박물관회연맹 서울 이사회·총회'가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세계 40여개 회원국에서 약 100여 명이 참석하며, 박물관회의 역할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박물관회연맹(Korean Federation of Friends of Museums)에서는 한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문화탐방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세계박물관회 관계자 뿐만 아니라 박물관회 회원 및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박물관회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물관의 발전을 위해서 박물관회와 자원봉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우리회를 중심으로 국립경주박물관회, 부산박물관회 등 전국의 6곳이 참여한 한국박물관회연맹이 2009년에 결성되었다. 박물관을 후원하는 비영리 단체로 회원 간의 정보교환과 후원인·후원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또한 같은 해에 세계박물관회연맹(World Federation of Friends of Museums)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아시아 지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Welcome



WFFM 2012

COUNCIL MEETING  
AND GENERAL ASSEMBLY

São Paulo, April 12-15, 2012



세계박물관회연맹은 각국 박물관의 발전을 위해 존속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내세운다. '국제박물관협의회'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박물관을 지지하고 상호보완의 관계를 유지한다. 한국이 가입하면서 중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회의 젊은 후원인들로 구성된 Young Friends of the Museum에 많은 관심을 보여 '젊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후원활동은 이상적인 박물관회의 모습'이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한국은 이사회·총회·국제대회에 매년 참석하며 세계박물관회와 활발히 교류 중이다. 특히 '2012년 브라질 상파울로 이사회·총회'에서 한국박물관회연맹의 윤석민 부회장(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이 부회장(아시아/아프리카/태평양 대표)으로 선임되어, 아시아 지역의 박물관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2013년 서울 이사회·총회를 기대하며, 박물관회 회원 여러분의 큰 관심을 바란다. 🇰🇷

고고관 부여·삼한실



새모양토기, 삼한(3~4세기), 전남 나주 용호무덤 출토

죽은 이의 영혼을 담아 天上으로 인도하는 鳥靈신앙이 깃든 고대 토기이다.  
어른 주먹만 한 크기로, 손으로 조물조물 빚은 듯 하다.  
살짝 누르면 새의 심장이 파닥거릴 것만 같다.  
한쪽 어깨에 구멍이 있어 물을 따르는 용기였음을 알 수 있다.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俞相玉, 柳昌宗 회장을 거쳐 2011년 11월 金正泰 회장이 취임했다

會長 | 金正泰  
 副會長 | 申聖秀 洪錫肇  
 理事 | 金英那 金信韓 金斗植 南秀淨  
 朴殷寬 成弼鎬 申憲澈 尹碩敏  
 尹在倫 李健茂 李圭植 許榕秀  
 洪政旭  
 監事 | 金義炯  
 事務局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원, 청룡 오십억원, 백호 삼십억원, 주작 십억원, 현무 오억원, 천마 일억원, 금관 오천만원, 은관 삼천만원, 청자 일천만원, 백자 오백만원, 수정 이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 천마회원

하나은행 金正泰  
 千信一 세종옛돌박물관장  
 孫昌根 소장가  
 尹章燮 호림박물관 이사장  
 SK에너지 申憲澈  
 尹碩敏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 금관회원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팬택&큐리텔 朴炳燁  
 (주)한섬 鄭在鳳  
 (주)STX 姜德壽  
 朴容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鄭明勳 서울시향 고문  
 權俊一, 具在善 Actium 부회장  
 庚園 광제사 주지  
 鄭溶鎭 신세계 부회장  
 都炯泰 깔리리현대 부사장  
 朴殷寬 (주)시몬스 회장  
 申聖秀 고려산업(주) 회장  
 洪錫肇 보광웨리마켓 회장  
 李垞炅 휴빅 대표

### 은관회원

柳昌宗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金鍾漢 (주)종합전기대표  
 成弼鎬 광성기업대표  
 徐載亮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柳芳熙 (주)풍산주택회장  
 南秀淨 (주)썬앳푸드 대표  
 許榕秀 (주)GS홀딩스 전무  
 金寧明 (재)예을 이사

趙顯相  
 최철원  
 洪政旭  
 金信韓  
 金承謙  
 李明姬  
 姜院基  
 李圭植  
 尹在倫

### 청자회원

金芝延 (주)컨셉 대표  
 申硯均 아릅지기 이사장  
 朴仙卿 용인대학교 부총장  
 田永采 한길봉사회 이사장  
 金永斌 김&장 법률사무소  
 玄明官 일진홀딩스(주) 대표  
 許正錫 OCI 부사장  
 李宇鉉 스무디즈 코리아(주) 대표  
 金性完 수원대학교 이사장  
 李仁洙 변호사  
 金榮秀 호성흥업회장  
 胡鍾一 성암고서박물관장  
 趙炳舜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慎昌宰 남양유업 전문위원  
 李雲卿 제일화재 이사장  
 金英惠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李美淑 열화당 대표  
 鄭在昊 법무법인 세종 대표  
 李起雄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辛永茂 성곡미술관 이사  
 辛炳讚  
 朴載蓮  
 李鈴子  
 朴海春  
 金宗學

한국도로공사  
 玄智皓  
 金南延  
 金寧慈  
 金正宙  
 梁汰會  
 丁恩美  
 鄭義宣  
 崔惠玉  
 洪誠杓  
 崔世勳  
 朴世昌  
 崔杜準  
 李海珍  
 金澤辰  
 李善眞  
 洋賢財團

薛允碩  
 李英純  
 朴正遠  
 李教祥  
 金載烈  
 金仁順  
 梁洪碩

朴禎原  
 朴知原  
 曹在顯  
 曹榮美  
 金世淵  
 金兌炫  
 Joseph Bae  
 具本商  
 朴善正  
 金裕錫  
 咸泳俊  
 金載勳  
 高基瑛  
 尹賢慶  
 韓榮宰  
 崔仁善  
 吳勝敏  
 許允秀  
 俞承熹  
 李幸旭  
 李萬圭  
 趙希卿  
 朴宣注  
 尹寬  
 林鍾勳  
 柳智勳  
 李濬宇  
 楊仁集  
 尹勝鉉  
 吳治勳  
 李學俊  
 李芝衡  
 金性南  
 金英姬  
 金京姬  
 韓惠舟  
 柳英芝  
 李胤基  
 崔再源  
 李甲宰  
 姜承模  
 全裁範  
 金斗植  
 成來恩  
 張升準  
 李宇成  
 許允烘  
 張仁宇  
 朴廷彬  
 具本赫  
 禹燦奎  
 徐東姬

두산산업차량(주) 부사장  
 두산중공업 부회장  
 경기도 문화의전당 이사장  
 (주)KPE 전무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성신양회(주) 부사장  
 KKR Asia 대표  
 LIG 넥스원(주) 부회장  
 대선제분(주) 상무  
 행남자기 대표이사 총괄사장  
 (주)오뚜기 회장  
 영풍제약 부사장  
 (주)금비 사장  
 동화약품 이사  
 노루홀딩스 회장  
 회원  
 동일산업(주) 부사장  
 (주)AITO (주)AITEK 부사장  
 코리아나화장품물관 부관장  
 (주)대주기공 사장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광주요그룹 이사  
 영은미술관 관장  
 BlueRun Ventures 대표  
 한미약품 상무이사  
 영남제분 부사장  
 흥아해운 상무  
 진로재팬 대표  
 (주)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대한제강 부사장  
 서울옥션 대표  
 변호사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강좌 수료생  
 (주)피오나조경 대표이사  
 화정박물관 관장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그랜드힐튼호텔 사장  
 SK부회장  
 삼일회계법인 전무  
 한국석유그룹 사장  
 금강공업 부사장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영원무역 이사  
 매경미디어그룹 상무이사  
 이테크건설 상무  
 GS건설 상무  
 근화제약 대표  
 신원 부회장  
 LS-Nikko 동계련 이사  
 학교재 대표  
 회원

